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판)

현대불교

고대종교에서 서서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세금 처리 상의 10%,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1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노태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2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이 지난 해부터 중앙종무원을 대상으로 매달 1회 실시해 온 포살법회를 이번 보름(22일)부터 지방 종무원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참회를 통해 거듭나겠다는 의지이다. 포살(布薩)은 청진 결재일로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 법한 죄를 참회하는 것이다. 재가와 출가는 포살에 있어 그 내용상 차이가 있다. 승가의 포살의식은 매달 음력 초하루 보름이던 온 대중이 모여 생활을 점검하고 계목을 의뢰 즉시 계를 범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재가는 매달 일일의 청정한 날을 정해 6재일(六齋日)이라 하여 그날만은 꼭 8계를 지켜나기도록 강조하고 있다. 지계(持戒)는 생활의 근본이라고 한다. 지계정신(持戒精神)으로 그릇된 욕망을 이겨가도록 힘써야 할 때이다. (권진자 주)

과거의 품으로 지은 악업(惡業)을 스스로 부우쳐 방종에 흐르지 않으면, 지혜가 생겨 죄를 제거한다. 과거의 업으로 지은 악업을 스스로 참회하여 거짓말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겨 죄를 제거해 없앤다. 과거의 마음으로 지은 악업을 스스로 참회하여 마음이 항상 청정하면, 지혜가 생겨 죄가 없어진다. (채희원회경)

어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들어 귀의하고 제 가지른 죄를 고백치 않나라. 잘못을 부우쳐 악한 마음을 씻어내면 해도받지 못할 것이 없다. (법찬신회경)

백천겁 동안에 모인 온갖 악행이라 할지라도 불법(佛法)의 힘으로 경순하 사유하면 일일일시에 남김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 (대집경)

간악 중생이 여러 악업을 짓고도 승거여 부우침이 없어, 마음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인과업보를 인정하리 않고, 슬기있는 이에게 부우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계(戒)를 지킨다 하고, 마음에 부우치지 않는 것을 계를 견다고 한다. (선계경)

신도시 포교 '발등의 불' 11면

출판가 인도·티벳 '열풍' 10면

마음으로 병다스린다 9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三藏 체계교육 절실” 82%

“승가교육 수행·교화에 부적합” 60%
10명중 3명 “의지하는 율·논장없다”

법랍이 15년 이상의 스님중 15%가 경·율·론 삼장(三藏)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명중 3명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율장이나 논장이 없는 등 80%이상 스님이 삼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사실은 가산불교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먼저 수행에 의지하고 있는 경전을 읽는 질문에서는 <금강경>이 32%를 차지했으며, <조사어록>(24.2%) <화엄경>(8.2%)과 그의 법화, 정도, 관음경류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에 조계종 소의경장이 <금강경>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로 스님 개개인에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 다르거나 <금강경>이 조계종 소의경장으로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율서(律藏)로는 <사분율>이 21.6%, <법광경>은 34.1%였으며, 26.6%가 ‘없다’로 대답해 율장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서(論藏)에 관해서도 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신론>을 꼽은 스님이 41.8%, ‘없다’는 응답도 무려 28.3%를 차지해 경·율·론 삼장에 대한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확립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국 스님들은 현재 승가 교육체계와 방법 및 내용이 현 시대의 수행과 교화에 적합하다(36.5%)는 생각보다는 적당하지 않다(60.3%)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따라서 삼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82.2%)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선원, 중앙승가대, 지방 강원 스님과 포교현장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40대 주지 등 총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2백12명의 법랍은 ‘20년이상’이 29.8%, ‘15년이상’ 10.8%, ‘10년이상’ 9.9%, ‘5년이하’가 49.5%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명우 기자)



○일주스님 김수환주거경 등 종교사회지도자들은 지난 12일 현사국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한보금동해를 가능케한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보외압 실체 국민의혹 밝혀라”

종교·사회지도자 75명 시국성명... 정치자금 법제화 요구

조계종총무원장 일주스님과 현주교 김수환 주거경, 박영규 목사, 고은 시인 등 종교·사회단체 지도자 75명은 지난 12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현사국에 규정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가업의 정치자금 제공금지 등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각계 지도자들은 “한보사건은 현정부의 통치행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제난과 맞물려 국민을 분노와 허탈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교계 등 사회각계가 연합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성명에는 고건 명지대 총장, 서영훈 우리민족서슬등기운동 상임대표, 김성수 전 성공회주교, 이세종 전 대한변협 회장, 김동원 한사대이사장 등 각계인사 75명이 서명했다.

망명 황장업비서 한국불교와 인연

지난 12일 중국 북경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황장업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한국스님의 북한방문을 초청하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한국불교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황이 한국스님들의 북한방문을 최종 승인했으며,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원스님(미국 거주)은 서울신문기자와의 통화에서(13일자 보도) “지



공까지의 8번 북한(중) 5인이 황장업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황장업은 일본에서 서용스님(고불총림 방장)과 함께 불교를 공부한 조선훈교도인명 홍화두고문과도 긴밀한 사이로 한때 불교에 귀의했으며, 불교적 정서를 지닌 인물로 알려졌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이 땅의 천년불상이 스며 있습니다. 불교문화는 그래서 영보입니다. 불교문화제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삶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예지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민형살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2월 테마여행 - 통도사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불보종찰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독특합니다. 냇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상로·중로·하로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과 불상을 안모신 탕반 대웅전(국보 290호)에서 통도사의 근본정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웅전 연화문 축대와 정교함과 영산전의 광장명화, 가람존자가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의 불발함, 감지근니화엄경변상도 등 통도사 국보·보물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람과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또한번 감탄하실 겁니다. 통도사 박물관장이며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장 발하스님이 안내 강연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첫 회에 동참하시어 97년을 더욱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참가 안내
- 출발: 2월 23일(일) 오전 7시·조계사 앞
- 인원: 발하스님(통도사박물관장) ○호반, 3인(중식 지원)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우여행사 (02)739-8100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5333(일통수) 입금후 한우여행사로 연락바랍니다.
- ※ 참가자에게 기념품(단추)과 아침식사대용 카리리미와 원비드를 드립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우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건강과 아름다움 같은 자연의 미를 피부미용을 추구합니다.

공해속에 노출된 스님들의 피부관리!

신선한 자연속에서 수행하시는 단 스님. 이제는 각종 유해 대기속에 어쩔수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피부관리를 못하시는 스님 - 이제 세안, 샤워 할때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를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 면역 피부 미용비누입니다.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상상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인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항방재료를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기러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기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인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희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한계된 각종 유해 중금속과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저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희박사 최 먼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능과 피부보호기능을 갖춘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화제에 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피부종류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